



행복한 에너지기술!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사람, 환경, 기술 그리고 사람 **Engineering for Human**  **한국전력기술**



Family

201810



www.kepco-enc.com

2018년 10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외

08 **청백리** | 양성평등을 위한 청렴 소통마당 개최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 **일하며 즐기며** | 전 세계 트레킹 버킷리스트 몽블랑 트레킹(1)

20 **문예** | 텃밭 예찬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24 **新성장지도** | 황금빛 물든 들과 바다 - 김제 지평선 축제

30 **Storytelling** | 중앙절 국화를 보며 가족을 생각하다

32 **기자칼럼** | 서치에서 혁신을 보다

34 **생활과 과학** | 미세 플라스틱과의 전쟁

36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38 **KEPCO E&C NEWS** | 4차산업 기술개발 역량교육 실시 외

40 **한기氏の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2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44 **인포메이션** |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46 **Poem** | 줄넘기

47 **에코포토** | 가을소경

통권 441호 ·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18년 10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 2018년 '동반성장 CEO 아카데미' 개최



회사는 지난 9월 7일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한국전력기술 '동반성장 CEO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와의 소통을 통한 동반자로서의 인식 제고와 동반성장·상생 협력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협력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반부패 청렴과 동반성장의 중요성 △협력업체제도 운영 △협력업체 보안점검 방법 안내 △청탁금지법/공익신고/부패신고 △회사 경영현황 및 전략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한전기술은 청렴윤리 실천과 동반성장 선도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동반성장의 실질적 실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력사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은 “전력 산업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로 협력사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며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반성장을 통해 발전적 협력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회사는 협력사 채용박람회 참여 지원,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동반성장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원자력과 AI’ 공동 워크숍 개최

우리 회사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원자력과 AI’ 공동 워크숍이 지난 9월 13일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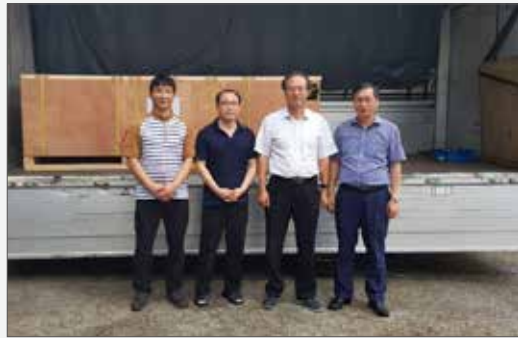
본사 1층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을 포함하여 신임 한국원자력학회장(김명현 교수) 및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민병주 교수)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원자력과 AI’를 주제로 원자력은 물론 타 산업분야 발표를 통해 미래원자력 기술의 활용 다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회사는 이번 공동워크숍을 통해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의 원전 적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에 힘쓸 방침이다.



달링턴원전 2호기 Mock-up용 원자로 부품 출하



회사는 지난 8월 31일 창원소재 (주)선광테크원(SKT)에서 달링턴원전 2호기 Mock-up용 원자로부품을 출하했다.

이번에 출하된 부품은 달링턴원전 설비개선 작업자 훈련용으로 설치된 Mock-up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난 2017년 8월 우리 회사가 달링턴원전 2호기에 공급한 Rings & Sleeve 5종과 동일한 제품으로 각 48개씩 제작되었다.

발주사인 Ontario Power Generation(OPG)사는 작업자들의 부품교체 사전 교육을 위해 지난 8월 23일 Mock-up용 부품을 긴급하게 요청해 왔다.

회사는 짧은 기간이지만 긴급 작업을 통하여 부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부품은 항공운송을 통해 9월 첫 주에 달링턴원전 현장에 도착했다.

이번 Mock-up용 부품 공급은 짧은 기간에 추진된 계약변경, 제작 및 항공운송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발주사와 주계약사의 신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미전자공고 학생 초청 기업탐방 실시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회사는 지난 8월 2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 70여명을 초청하여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미래인

재를 양성하고, 지역민과의 교류 활성화로 지역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회사 홍보영상 시청, 선배와의 대화, 역사에서 배우는 윤리 등으로 진행되었다.

구미전자공고 선배로서 후배들과 함께한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최누리 사원은 “짧은 시간이지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담을 나누어 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인솔한 이인호 선생님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업이 실제 산업 일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생히 지켜본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을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갖게 해준 한국전력기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회사는 지역과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 상생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청림 소통마당 개최



회사는 이동근 상임감사 주재로 양성평등을 위한 청림 소통마당을 지난 8월 1일 개최했다.

이번 양성평등 청림 소통마당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여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기업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여직원 19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문화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미투운동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회사에서는 보고된 사례가 없어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잠재되어 있거나 숨겨진 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2018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결과를 참고로 자체적인 성윤리 기업문화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원자력본부 전입직원 청림교육 및 간담회 개최



회사는 에너지신사업본부에서 원자력본부로 전입한 직원 34명과 기술부서장, 운영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본부 전입직원 청림교육 및 간담회를 지난 8월 1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자력본부의 운영방향, 원자력발전소 설계 현황, 원전감독법, 청림도 향상 노력 등에 대해 원자력본부 전입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강화된 설계 요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원전 사고에 대비한 설계, “안전성” 개념을 반영한 설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하에서 비즈니스 영역 확장을 통한 향후 2~5년간의 사업포트폴리오를 직접 설명하였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34명의 전입직원들은 원자력본부의 명예로운 핵심직원임을 스스로 명심하고, 규범과 절차 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에 따른 높은 청렴의무와 윤리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곰 세 마리’라는 동요가 있지요.
아빠 곰은 똥똥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혀 짧은 소리로 노래하는 모습이 귀엽다가도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날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사가 헛갈려서 ‘엄마 곰은 똥똥해’로 불렀더니
아이가 달려와서 작은 손으로 엄마 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이 집에서 이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을 심어 주는 것은 인성 발달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 전까지 아이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은
‘상어가족’이라는 노래와 영상이 있었지요.
가족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기 상어는 귀엽고, 엄마 상어는 어여쁘고,
아빠 상어는 힘이 세고, 할머니 상어는 자상하고,
할아버지 상어는 멋있고, 저만 귀엽다는 가사에 웃음이 납니다.
무서운 표정의 상어가 나타나자 겁에 질려 도망치는
물고기들 보고 불쌍하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불안과 공포감을 심어 준다는 이유로
선생님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요를
유난히 싫어하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힘내라고 해 놓고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것은
우리가 있으니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 오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노동에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부터
없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며 노래를 탓합니다.
물론 옷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생각이 많아지네요.
아무래도 ‘산토끼 토끼야~’를 부르던 그 시절이 좋았나 봅니다.

전 세계 트레킹 버킷리스트

몽블랑 트레킹(1)

투르 드 몽블랑(TMB : Tour du Mont Blanc)은 몽블랑(4810m)을 주봉으로 하여 길게 뻗은 4000m 급의 산군들을 가운데 두고 둘레길 약 185km를 걷는 여정이다. 둘레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걷고, 뛰고, 자전거로,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을 나는 등 다양하다. TMB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남녀노소, 국적 불문, 그룹, 개인,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하다. 여정의 제한으로 우리는 그 중에 전망이 좋다고 알려진 동쪽 편 산길 약 80km를 골라서 걸었다. 트레킹 최저 높이는 해발 약 1000m 급 평지에서 최고 높이는 3842 m 에귀디미디 전망대에 이르기까지 도보, 차량, 곤돌라,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으로 이동했다. 트레킹은 지난 7월 22일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꾸르마이어에서 출발하여 7월 23일 스위스 샹페, 트리앵을 거쳐 7월 27일 프랑스 샤모니까지 모두 6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번 몽블랑 트레킹은 대덕산우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13번 째 해외산행이며 김항배 회장, 윤석정 산행대장, 이정양, 오양균, 김철우, 문병환, 서성기, 최철진, 서경희, 박태근, 손갑헌(OB) 회원과 가족 회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칼다 트레킹 능선 길에서



능선길



꾸르마이어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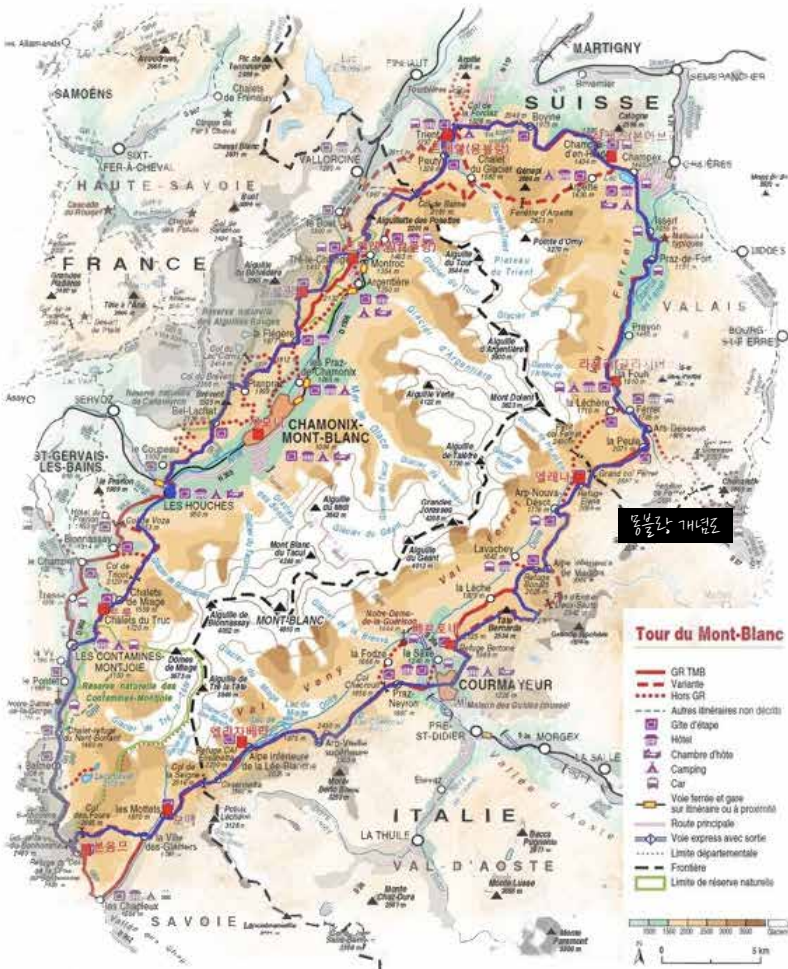
제네바공항 도착

첫째와 둘째 날. 7월 20일 늦은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에미레이트항공으로 출발하여 두바이공항을 거쳐 약 20시간 만에(환승시간 포함) 스위스 제네바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다시 차량으로 프랑스 샤모니를 거쳐 약 2시간 30분을 달려 이탈리아 꾸르마이어(1226m)에 도착했다. 샤모니(1037m)와 꾸르마이어는 몽블랑 아래를 관통하는 긴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다. OTTOZ호텔에 여장을 풀고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즐겼다. 식사 메뉴는 수제 포도주를 곁들인 피자, 파스타, 샐러드였다. 이탈리아 오리지널 피자를 먹는 즐거움이란....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트레킹의 성공을 위하여 회원들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1대가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이었는데 마치 민속촌을 보는 듯한 풍경을 연출하였다. 집 외부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크고 작은 집들의 조화가 마치 중세로 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탈리아가 왜 디자인 강국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엘레나산장까지 트레킹

셋째 날. 아침 8시 30분경 필요한 물품을 배낭에 챙겨 넣고 호텔의 반대편 계곡 쪽으로 트레킹을 시작했다. 점점 고도를 높여 중간지점에 도착하니 마을이 저 멀리 아래에 보이고 몽블랑 정상이 구름에 가렸다가 잠시 모습을 드러내곤 하였다. 회원들은 정상이 잠시 보일 때 마다 탄성을 지르며 사진 촬영을 하였다.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꾸르마이어 뒷산 8부 능선에 있는 베르토네산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했다. 어제 밤에 머물렀던 호텔이 작은 점으로 보였다. 그곳에서 부터는 2개의 팀으로 나누어 1개 팀은 꾸르마이어 뒷산 능선 길을 걸었고 다른 1개 팀은 8부 능선 길을 걸어 두 팀이 하산 지점에서 합류하였다. 몽블랑, 땡두지앙, 그랑조라스 등 거대한 알프스산군들의 정상부가 눈으로 덮인 파노라마를 약 2000m 정도의 계곡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감동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암벽 산악인들의 성지 중 하나로 알려진 그랑조라스 앞을 걷는 것이 마치 꿈길 같고, 하이드가 뛰어놀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게다가 등산로 좌우에는 야생화가 치천으로 만발하여 마치 천상세계를 걷는 느낌이었다. 합류 지점에 도착할 즈음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울리며 검은 비구름이 지나갔지만 다행히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다. 계곡으로 하산하여 셔틀버스를 타고 숙소가 있는 엘레나산장(2061m)으로 향했다. 버스 종점에서 엘레나산장까지는 한 시간 거리로 잔설지대를 지나면서 차가워진 골바람이 우리의 발걸음을 힘들게 했다. 산장은 많은 등산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2층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세면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었다. 저녁식사로 제공된 설익은 파스타가 입에 맞지 않은지 여러 회원들이 컵라면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몽블랑 오르는 길





발트르에서 계곡



페렛고개

이탈리아와 스위스 국경을 넘어

넷째 날. 아침 8시 기념촬영을 마치고 엘레나산장을 나섰다. 어제 불던 차가운 바람이 아직도 세차게 불어댄다. 오늘의 목표는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국경을 이루는 Gd Col Ferret 고개(2537m)를 넘어 스위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도를 점점 높이자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안개구름이 짙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소용돌이치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얼마 후에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세상이 되었다. SNS로 확인한 한국의 기온은 섭씨 36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손이 시리고 몸이 자꾸 움츠러든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도를 약 500m 올리는 동안 휴식도 없이 올라가니 몸이 피곤했다. 간신히 고갯마루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럽의 젊은 커플이 반바지 차림으로 올라와서는 안개구름 속으로 성큼성큼 사라지는 모습이 우리를 맥빠지게 했다. 불타는 청춘은 추위도 안타나?



사진찍하기



발트르 고개에서 몽블랑을 배경으로



그랑도라스



휴식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국경을 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도 그치고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하산길, 스위스에서도 어김없이 야생화가 만발하였다. 이탈리아 구간과는 달리 스위스 구간에서는 나무는 별로 보이지 않고 초지에 야생화만 피어 있었다. Gd Col Ferret 고개는 백두산 높이와 비슷할 정도로 높아서 정상부는 나무가 자라기에 조건이 부적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도가 낮아지자 방목하는 소떼들의 방울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반대 방향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의 표정도 밝았다. 하산 길에 목가적 분위기가 나는 스위스 산장에서 오믈렛과 전통차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La Fouly에 도착하여 여행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하여 샹테호수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다. 다시 차를 달려 숙소가 있는 전형적인 목가적 스위스 풍 소도시인 트리엔(Trient)에 도착했다. 숙소는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불편했지만 저녁 식사로 제공된 감자 풍류는 별미였다.

스위스 트리엔에서 발트르고개를 넘어서

다섯째 날. 출발 전에 우리 일행이 단체로 스트레칭을 하니 외국인 등산객들이 재미있어 하고 처음엔 웃기만 하더니 나중엔 우리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였다. 트리엔과 발트르고개(Col de Balme) 사이의 고도차는 약 800m다.

발트르 오름



발트르고개에서



스위스 목장





발트 고개

여러 단체에서 온 산행객들로 인하여 조용했던 시골마을 트리엥이 시끌벅적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온 등산객이 많았고 젊은이들은 캠핑족들이다. 점점 고도를 높여 가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우리 일행의 숨소리도 가빠져 왔다. 6부 능선까지는 침엽수림대로 피톤치드 향기가 상쾌하였으며 그 이상의 구간은 붉은색 철쭉과 비슷한 알핀로제(Alpin Rose)가 주종을 이루다가 발트고개에 가까워지자 초본류만 무성했다. 초원지대에 도착하여 출발지 트리엥 마을을 쳐다보니 아스라이 저 멀리 보인다.

발트고개(2205m)에 도착하니 갑자기 몽블랑 산군의 쪽 뺨은 하얀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며 모두 탄성을 지른다. 구름 한 점 없는 몽블랑 정상을 보다니! 한참 동안 발트고개에 머무르며 알프스 산맥의 웅장한 자태를 감상하였다. 발트고개는 스위스와 프랑스의 경계를 이룬다. 4각형의 조그만 경계석 동쪽

은 스위스 그리고 그 반대쪽은 프랑스 땅이다. 그렇지만 국경의 출입을 통제하는 아무런 시설이나 인력도 없었다. 자유 그 자체였다.

이제 부터는 프랑스 지역을 걷는다. 하산 중 OUVERT산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감자채 부침개, 치즈 요리, 소시지와 시원한 맥주를 곁들인 프랑스식 점심식사는 전원풍경과 어울려 환상적이었다. 휴식 후 약 2시간을 더 걸어 샤모니 외곽의 Col des Montets로 하산하였다. 하

산 길 주변에 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철제 방어벽이 여러 개 있었다. 마을 외곽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도착했다. 숙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미토리식이어서 약간 불편했지만 어제보다는 시설이 깨끗하고 수용 인원도 적었다.



브레이크 하산길 잔디밭



트리엥

락블랑 가는 길

여섯째 날. 어제와 마찬가지로 출발 전 단체로 스트레칭을 하니 다른 외국인들도 우리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즐거워하였다. 산행 기점 Col

des Montets(1461m)와 오늘의 목적지 락블랑(Lac Blanc : 2352m)간의 산행 거리는 짧아도 고도가 차가 더 크고 울퉁불퉁한 바윗길이 많아 난도가 높다. 락블랑으로 가는 동안 왼쪽편의 아래로는 샤모니 시내와 위로는 알프스 고산들을 보게 된다. 트레킹 내내 오전에는 날이 맑아서 설산과 빙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오후에는 하얀 구름이 몽블랑 주변을 감싸며 빛나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락블랑으로 가는 길에는 곳곳에 고산 습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자그마한 호수도 여럿 있었다. 호수 위에 반영으로 구름과 함께 비친 몽블랑의 모습이 마치 꿈을 꾸는 듯 아름다웠다.



라플리 잔디밭

락블랑은 하얀 호수란 뜻인데 지금은 눈이 없었다. 저 멀리 산 정상부에서 빙하가 녹아 락블랑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수온이 차갑고 물맛도 좋았다. 호반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플레제르 산장으로 하산하였다. 하산 길은 너덜지대와 자갈, 바위 등이 가로막아 미끄럽고 힘들었다. 그래도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내렸다. 좋은 산은 우리에게 그렇게 묘한 매력을 뽐낸다.



페렛 하산 점심

플레제르 산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다시 에귀호우저 능선 정상 쪽 앙덱스(2405m)로 올라가 알프스 고산들을 감상하다가 플레제르 산장으로 다시 내려와서 케이블카로 갈아타고 샤모니 시내로 들어왔다. 이제부터 샤모니에서의 여정이 시작된다. 버스를 타고 약 10분여를 달려 샤모니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다. 시내에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치고, 재즈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으며 집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마치 우리를 환영해 주듯이. **E&C**

- 다음 호에 계속 -

텃밭을 여쭙는

남편을 따라 혁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뜻하지 않게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친척도 친구도 없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우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정붙이고 살게 해준 일이 바로 작은 텃밭 가꾸기였다.

서울 토박이인 나는 흙하고는 친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된 신작로에서만 뛰어다니며 자라다 보니 맨 흙이 주는 감촉이 이리도 보드라운 지 처음으로 알았다. 맨 처음 두 평 남짓한 척박한 땅에다 제법 농부 티를 내느라 거름 한 포대를 사다가 뿌리고 커다란 돌덩이들을 골라내면서 씨앗 뿌릴 준비를 하였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고향 냄새인 거름 냄새가 역겹고 흙속에 수없이 기어 다니는 이름 모를 징그러운 벌레들에 질색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나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지만 남아도는 낫선 시간들을 보내는 데는 농사만 한 노동은 없는 것 같았다.

일단 흙을 만지면 해도 해도 할 일이 넘쳐나고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쪼그리고 앉아서 고랑을 파고 줄을 맞추어 골고루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물을 뿌려주며 과연 이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기나 할까? 먹을 수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으며 대망의 파종을 했다. 사소한 욕심은 많은지라 고추, 상추, 깻잎, 치커리, 오이, 부추, 쪽파, 토마토 등 다양하게 구색을 갖추어 이 작은 밭에 오밀조밀 씨앗을 뿌렸다. 그 후 일주일간은 인내의 시간이었다. 매일 밭에 나가 물을 주며 혹시나 싹이 트지 않았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며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한 일주일 남짓 지났을까 드디어 아주 작고 어린 새싹들이 뻗음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이 어렵지 조금 지나자 작은 텃밭이 감당해 내지 못할 정도의 새순들이 무리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농사 초보자라서 너무 많은 씨앗을 뿌린 듯 했다. 빠르게 자라나는 새 생명들을 속아서 먹으라고 옆 밭의 할머니가 알려주셨지만 너무나 연하고 정말로 예뻐서 어떻게 속아 주어야 하나 고민 아닌 고민이 되었다. 다음번에는 꼭 정량만 뿌려야지 하는 다짐을 하며 파릇한 새순을 한 아름 속아 와서 저녁 나물거리로 무쳐 먹으며 아까 고민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향긋하고 싱싱한 자연의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텃밭은 계속해서 자연의 정직함을 일깨워 주며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 주고 있다. 하얀 고추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리는 어린 풋고추는 아들아들하고 얼마나 달짝지근한 맛이 나던지, 단 한 그루 심은 깻 대에서 올라오는 깻잎의 향은 입에 넣으면 허가 알파할 정도의 깊은 풍미로 유혹을 하고, 잎사귀를 꺾으면 묻어나는 몸매 좋다는 하얀 진을 듬뿍 품은 상추는 뽀뽀하지도 얹지도 않고 딱 씹 씹 먹기 좋은 식감을 자랑하며 입맛을 돋우어 준다. 검붉은 빛이 도는 강



렬한 치커리는 색깔만큼이나 강력하고 확실한 쓴맛으로 건강에 좋은 야채라고 뽐내는 듯하고,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아삭한 오이는 과일 맛나고 수분이 풍부한 오이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무성하게 뻗어 오르는 가지와 잎에 비해 열매는 빈약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따먹을 수 있는 빨간 토마토는 푸른잎채소 무리 속에 활력소가 되어 주고 있다.
가장 늦게 올라와서 이제야 무성해진 부추와 쪽파는 가위로 잘라먹고 다시 며칠 뒤에 가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길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듬직하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마트에 채소 사러가지 않아도 오늘 저녁 찬거리가 풍부하게 진열되어 있는 작은 우리의 텃밭은 건강을 지켜주는 퍼내도, 퍼내도 비지 않는 무한 공간 같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해줘서 신체가 건강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좋은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밤새 채소들이 안녕했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텃밭까지 나가게 하니 유산소 운동을 시켜 준다. 무거운 비료와 물바가지들을 나르며 근육운동을 시켜주고,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스트레칭까지 시켜주며,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하다는 비타민D 생성에 좋은 햇빛을 쏘여주어 튼튼한 뼈로 단련 시켜주고, 아울러 가장 중요한 낫선 도시 안에서 하마터면 정신적 건강을 잃을 뻔했는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까지 맛보게 해 주고 있다.

도시에서 살 때는 통장 잔고 비는 것만 걱정하며 살았는데 우리의 작은 텃밭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직 많다고 그래서 나누어 줄 것도 많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오래 오래 거기에 머물며 계절의 순환에 따라 비우고 채우고를 반복하며 마음을 위로해 줄 텃밭님 고맙습니다! 



C ommunication

백화점에 갔다.

새로운 물건들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집어 드는 것 마다 집에 있는 것들이 아른거린다.

사들이는 것 보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

말처럼 쉽지 않다.

그곳에서 소식 뜬한 지인을 만났다.

누구에게나 방황의 시기는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근간의 삶을 흔들기도 한다.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건

가까이 가보지 않아서 그렇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다.

오고 가는 변화야 거침이 없거늘,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지나온 길 돌아보면 아득하지만

그래도 그 길 위에 어찌 즐거운 시절 없었을까.

위로랍시고 던진 말이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스마트 체인지라는 책에

“‘언젠가는’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안에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다는 것.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보면

크고 작은 행복이 도처에서 기다린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하다.

막연한 꿈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챙겨 보자.

희망의 아침이 있고 고요한 안식의 밤이 있어

때때로 찾아오는 슬픔의 그림자도 괜찮다.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 인생도 사막이 될지 모른다.

황금빛 물든 들과 바다 김제 지평선 축제



만경강과 징계맹게 외배미들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의 해발 675m 지점 남서쪽 계곡에서 발원한 강은 만경강이다. 만경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너른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북서부 일대를 흘러 김제시와 군산시의 경계인 만경 땅에 이르러 서해로 빠져나가는데 그 길이는 85.75km이다. 만경강은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큰 강으로, 200만 전북도민 가운데 100만명 가량이 이 강 유역에서 살고 있다. 김제는 동남쪽의 금산면과 금구면의 일부 산간지대를 빼고 전체면적의 60%가 평야 지대이다. 죽산들, 만경들, 봉산들, 봉남들, 부량들, 돛배들, 남포들, 청하들, 부용들, 동계들, 백구들 같은 들이 김제 내륙 곳곳에 자리를 틀고 있는데 이 들들을 통틀어 김만평야라고 부른다. 예부터 이 땅을 '징계맹게 외배미들'이라 불렀다. 징계는 김제, 맹게는 만경을 이르는 말인데 외배미들은 이배미 저배미 할 것 없이 한배미로 탁 트였다는 말이다. 김제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40분의1 수준에 육박한다. 일제시대에는 이 곡창지대가 안전할리 없었다. 일본은 인근 군산항을 통해 쌀을 자국으로 수송 하였고 이동을 편이하게 하기 위해 전주와 군산간 전군가도를 닦기도 하였다. 지금도 군산에 일본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는 연유가 이렇다. 어쨌거나 김제 들녘의 풍요는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강과 들과 사람의 어우러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삼한시대 수리시설 벽골제

너른 김제의 도작 역사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끌어 땅을 적셔야 하는데 비오고 눈오는 자연의 힘만으로 부족해서 사람들은 저수지를 만들었다.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의 벽골제(사적 111호)는 밀양 수산제, 제천 의림지와 더불어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수리시설로 알려져 있다. 벽골제는 벽골의 독이란 의미로 벽골은 김제의 옛 이름 벼골, 곧 벼의 고을이란 뜻에서 유래한다. 이곳에선 해

마다 10월, 추수를 앞두고 김제 지평선 축제가 열린다. 이때에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쌍용놀이라는 이색적인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와 얽힌 전설이 있다. 벽골제 부근에는 백룡과 청룡이 살았다. 백룡은 성격이 선하고 온순했지만 청룡은 심술 맞아서 가끔 벽골제 독을 무너뜨리곤 했다. 신라 원성왕 때 벽골제 보수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원덕랑이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김제 태수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태수의 딸 단아가 그를 흠모하게 된다. 그에게는 사실 고향에 월내라는 약혼녀가 있었다. 보수공사가 다 끝나가던 어느 날, 청룡이 심술을 내어 다시 독 한 군데를 무너뜨려 버렸다. 처녀에게 용을 바쳐야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소문이 인근에 퍼지게 된다. 그때 마침 약혼녀 월내가 원덕랑을 만나러 김제 땅에 오게 되는데 태수는 월내를 보쌌하여 용에게 바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를 알게된 단아는 월내 대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용의 제물이 되고 사랑하는 원덕랑이 월내와 혼인할 수 있게 하였다. 감동한 청룡은 심술을 멈추게 되고 백룡과 함께 벽골제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호남 최대의 가을축제, 지평선 축제

10월 초순 벽골제에서 열리는 김제 지평선 축제는 호남 최대의 가을 축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농경문화의 오랜 전통을 테마로 꾸며진 축제이다. 행사의 축은 역시 드넓은 황금색 가을 들녘을 배경으로 농경과 관련된 테마로 펼쳐진다. 풍년과 기원을 비는 전국농악경연대회, 들노래 시연, 벽골제의 전설에 등장하는 단야농자와 축제의 성공을 위한 전통제례, 12가지 농경체험 프로그램, 농경과 관련한 전시 등이 마련되어 있다. 행사가 열리는 벽골제에는 이미 농경문화박물관,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등 농경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들이 갖춰져 있다. 석기시대로 부터

01 고단한 여름을 지난 들판에 알곡이 가득하다 02 우리나라 유일의 3층 법당인 금산사 미륵전(국보 61호) 03 벽골제는 지평선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04 부처의 진신 사리를 모신 금산사 석종과 방통계단 05 만경강 하구의 해넘이 풍광 06 금산사 담장이며 정원 곳곳에 꽃무릇이 한창이다 07 단야의 전설에 등장하는 쌍용 조형물 08 벽골제의 전통수문인 장생거 09 아기가 지닌 조형물과 산책하기 좋은 정원이 꾸며져 있다 10 망해사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진봉면의 들판



11

근대에 이르는 농촌 생활과 농경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박물관 외부의 용두레, 밭두che, 무자위 같은 다소 생소하지만 예전부터 우리네 농촌 풍경을 장식하고 있던 농사 시설물들을 직접 보고 시연해 볼 수도 있다.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흥과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대지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점점 도시화 산업화 되어 설자리를 잃어가는 우리 농경 문화의 노스텔지어를 지평선 축제에서는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다.

축제기간/ 2018년 10월 5일 ~ 10월 9일

지평선 축제 홈페이지/ <http://festival.gimje.go.kr>



12



13



14



15

모악산 자락의 천년고찰 금산사

김제의 진산 모악산 자락에는 미륵신앙의 도량인 금산사가 있다. 미륵신앙은 삼국말기, 백제에서 유행하였는데 현세에 행복하지 못해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여러 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년), 왕의 복을 비는 사찰로 처음 지어졌다. 창건 당시에는 소규모 사찰이었으나 신라 해공왕 2년에 진표율사에 의해 중창되면서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 한편 스스로 미륵임을 자처하는 후백제왕 견훤이 이절을 자기 복을 비는 원찰로 삼고 중수했다는 설도 있다. 견훤은 말년에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 주려다가 맏아들 신검에게 붙잡혀 금산사에 유폐당하기도 했다. 경내를 들어서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3층 법당이 눈에 띈다. 국보 62호로 지정된 미륵전이다. 미륵전에는 동양에서 가장 크다는 11.82m의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금산사는 노천 박물관이다. 미륵전을 비롯하여 아홉 점의 국가지정문화재들이 경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석종과 적멸보궁도 만나볼 수 있다. 고찰을 찾는 것은 좀 한적한 시간이 적당하다. 평지사찰이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유명사찰의 경우, 한낮을 피하는 것이 좋다. 사찰에서는 새벽과 저녁에 예불이 진행되는데 가급적이면 금산사를 찾을때 이 시간에 맞춰 들러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금산사 예불 전의 법고를 비롯한 사물의 올림은 기왕 김제를 찾는다면 꼭 들어 봄직하다.

광활한 들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에 자리한 망해사는 백제 의자왕 2년(642) 부설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사찰이다. 오래된 유서에 비해 사세가 작고 단출하다. 그러나 김제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문지다. 만경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풍광이 그윽하고 특히나 일몰 풍광이 빼어나다. 새만금간척지가 만들어지면서 강과 바다의 풍모는 조금 훼손되었으나 여전히 서해바다 풍경을 감상하기에 손꼽히는 곳이 아닐까 싶다. 망해사에서 바라보는 풍광도 좋지만 망해사 뒤편에 자리한 전망대에 올라보는 것도 추천한다. 50m 가량의 숲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전망대가 나타나는데, 만경강하구와 새만금간척지, 김만평야의 너른들 풍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E3C**



16

11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장 12 아이들을 위한 전시물과 체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13 농경문화전시관에 전시된 무자위 14 단출하지만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망해사 15 망해사는 만경강 하구와 맞닿아 있다 16 망해사 종각 앞으로 흐르는 만경강

중양절 국화를 보며 가족을 생각하다



일기분류 : 전쟁일기

출 전 : 쇜미록(瑣尾錄)

시 기 : 1592년 9월 9일~

인 물 : 오희문

주 제 : 미분류

장 소 : 전라북도 장수군

◆ 제비가 돌아가는 날, 중양절

이 이야기는 오희문이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내용이다. 중양절은 본래 중국에서 기원한 명절이다. 동양에서 1,3,5,7,9와 같은 홀수는 양(陽), 2,4,6,8과 같은 짝수는 음(陰)의 수로 여겼다. 중양이란 월의 수와 일의 수가 모두 양의 수란 뜻을 가지는데 보통 양의 수 중에서도 가장 큰 9월 9일을 중양절, 혹은 중구라고 불렀다. 중은 '거듭' '겹친다'의 의미를 가진다. 중양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지는 데, 국가에서는 고려 이래로 정조(正朝), 단오(端午), 추석(秋夕)과 함께 임금이 참석하는 제사를 올렸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연회인 기로연도 열렸다. 일반 사가에서도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였다. 또 양(陽)이 가득한 날이라고 하여 수유 주머니를 차고 국화주를 마시며 높은 산에 올라가 모자를 떨어뜨리는 등고의 풍속이 있었고 국화를 감상하는 상국(賞菊), 장수(長壽)에 좋다는 국화주를 마시거나 혹은 술잔에 국화를 띄워 마시는 범국(泛菊), 양반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는 시주(詩酒)의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 민가에서는 중양절보다는 추석이나 백중(7월 15일), 대보름 등 명절이 훨씬 성대하였다. 그 이유로는 중양절 시기가 벼 수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사일이 바쁜 시기였으므로, 이를 명절로 즐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가에서는 3월 3일을 제비가 돌아오는 날, 9월 9일 중양절을 제비가 돌아가는 날로 여기기도 하였다. 한편 중양절에는 국화주와 국화전, 잘게 썬 배와 유자(柚子)와 석류(石榴)와 잣등을 꿀물에 탄 화채(花菜)를 먹기도 하였다.



1592년 9월 9일, 밤중부터 큰 비가 내리다가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개었다. 비 온 뒤 깨끗한 하늘이 청명하였다. 오늘은 9월 9일 중양절로, 수유 열매를 머리에 꽂는다는 명절이었다. 서리바람이 날마다 불어오는 계절에 세상은 온통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옛날 시에도 가을이 오면서 새로운 감회를 토로한 것들이 많았는데, 하물며 지금은 나라의 운수가 어려워 온갖 흉한 무기들이 나라에 가득하고, 몸은 호남 지역을 떠돌면서 가족들의 소식도 모르는 처지이니, 오희문의 감회가 오죽하겠는가! 늙으신 어머니와 처자들의 생사를 모르고 헤어져 있는데,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떠돌아다니며 입에 풀칠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명절날 이러한 생각을 하니 슬픈 감회가 일었다.

국화 한 송이를 꺾어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 슬픈 눈물이 가득히 솟는다. 하늘이 도와 우리 늙은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내년 오늘에는 잔치를 마련해 놓고 각각 서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는 오늘과 같은 기쁨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다'고 떠들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꺾은 국화꽃에 어머니와 아내, 딸들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느끼며 오희문은 처연한 심정을 어찌할 줄 몰랐다. E&C

서치에서 혁신을 보다

한국 경제에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삼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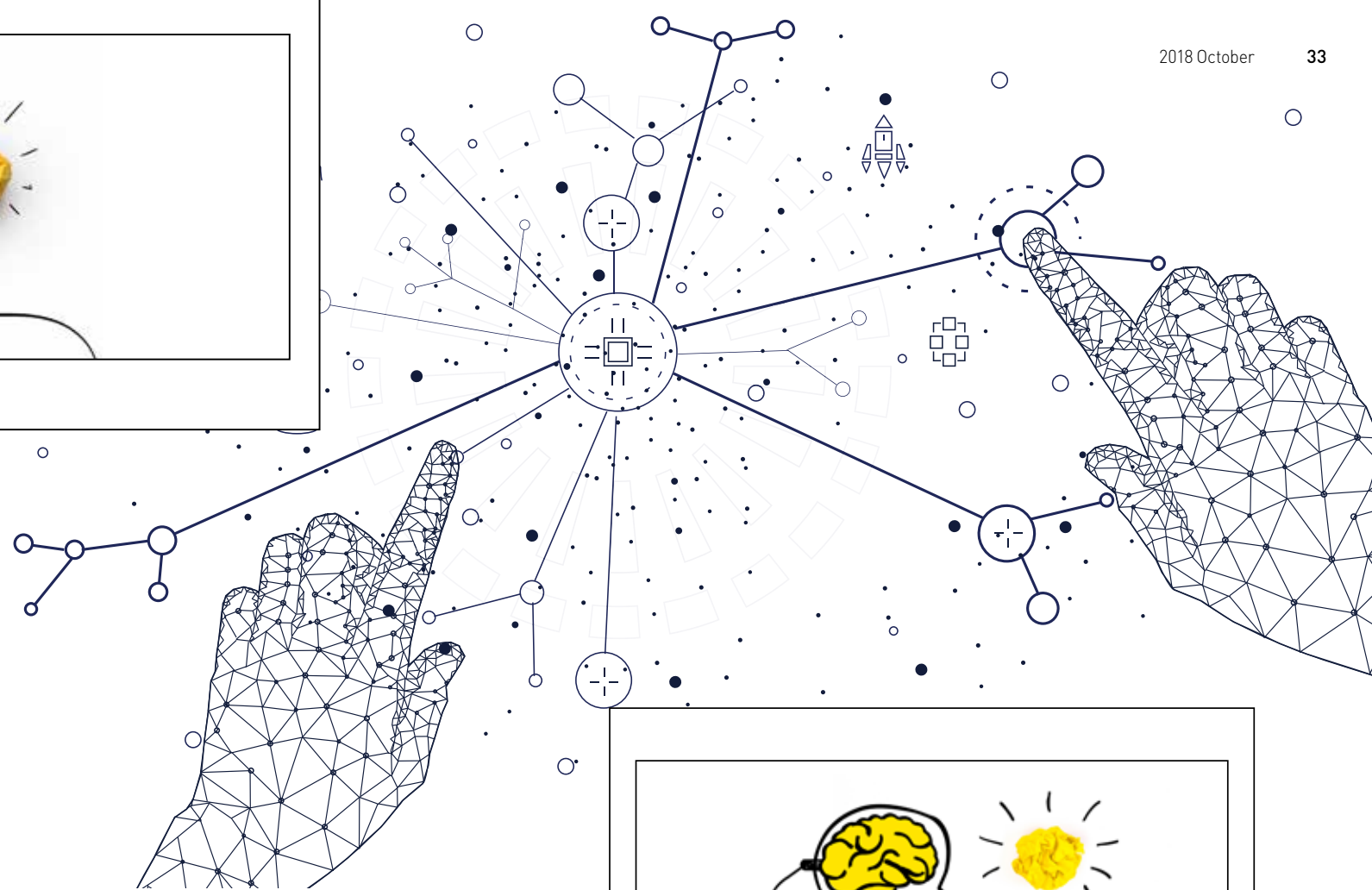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혁신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영화 '서치'를 봤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예매율 순위 역주행으로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영화를 좋아해서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영화 데이트를 즐기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달리 볼만한 게 없어서 골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올해 들어 본 영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스크린'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영상통화, 인터넷의 유튜브 재생화면, CCTV 영상이나 SNS의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들입니다. 관객의 눈을 대신해 장면을 잡아내는 일반적인 방식의 카메라 촬영 없이 '스크린'에 투영된 화면만으로 2시간에 달하는 장편 영화를 구성한 것입니다. 가히 연출의 혁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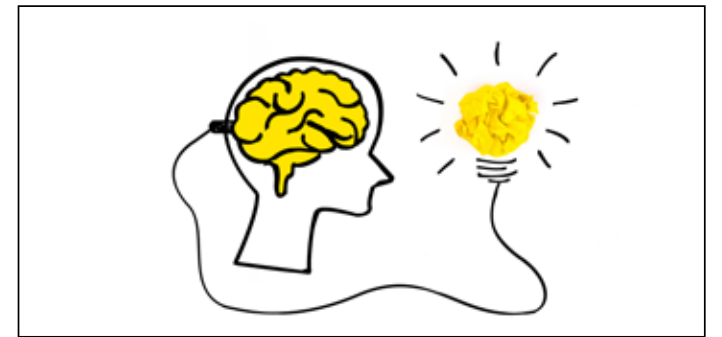
혁신이라고 하면 흔히들 완전히 새로운 것, 전에 없던 것들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치'의 제작자 티무르 베크맘베토브가 영화의 형식을 착안한 계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티무르는 인터넷 영상통화 프로그램인 스카이프를 계기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영상통화를 마친 동료의 실수로 화면공유 기능을 끄지 않았는데, 공유된 '스크린'으로 동료의 일상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스크린 라이프'입니다. 티무르가 찾아낸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스카이프, 즉 '스크린'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심지어 '서치'가 스크린 라이프 형식을 도입한 첫 영화인 것도 아닙니다. 티무르는 제작자로 참여한 '언프렌디드:친구삭제(2014년 개봉)'를 통해 스크린 라이프 형식을 선보였지만, **'혁신' 대신 무모한 도전 정도에 그쳤지요.** 이와 달리 '서치'를 혁신의 반열에 올린 것은 젊은 감독 아니쉬 차간티입니다. 혁신 기업의 아이콘 구글에서 수년간 영상과 광고를 만들었던 그는 '서치'를 통해 마우스 커서에 감정을 부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티무르와 이를 구현해 낼 방법론을 고민해 온 아니쉬가 만나 '서치'라는 혁신을 완성해 낸 것이죠.

이 같은 '혁신 방식'의 사례는 과거의 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열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백열전구를 처음 개발했고,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전구의 수명을 길게 해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지요.



3M의 대표 상품인 포스트잇, 정확히는 거기에 쓰인 잘 붙고 떨어지는 접착제도 처음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진은 새로운 접착제의 용도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을 모르는 끈기가 바로 이들의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혁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작은, 혹은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섬세함. 그 가능성을 키워낼 수 있는 실력과 좌절하지 않는 끈기. 오늘날 우리가 '혁신'이라 칭하는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십, 수백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글썄요, **진짜 혁신은 오늘 땀 흘린 누군가의 오래된 노트 속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착각일까요? E&C**

미세 플라스틱과의 전쟁



지금 세계는 플라스틱과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플라스틱에 규제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도 참여한다.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플라스틱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30년대 영국 화학자들에 의해서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니 채 100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플라스틱은 유리, 나무, 철, 종이, 섬유 등을 대체하는 기업을 토했다. 이제 식품, 화장품, 세제, 의약품 등 현대인의 생활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싸여 있다. 이토록 플라스틱이 번성하게 된 비결은 우선 변신 가능성에 있다. 물렁물렁한 케첩 통도 탄탄한 자동차 내장재도 플라스틱이다.

필요에 따라 유연성과 탄력성, 강도와 내구성을 조절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만능 소재. 소소한 포장재부터 가구와 의복까지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싼 가격,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에 더해 플라스틱이 가진 놀라운 특성 중 또 하나는 영속성(永續性)이다. 플라스틱은 분해되거나 녹슬지 않는다.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플라스틱은 지구 어딘가에 계속 존재한다.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은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골칫거리다.



사진. 이 많은 플라스틱이 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shutterstock)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떠오른 플라스틱

피부 각질 제거에 효과 있는 세안제나 치약 속에 든 작고 꺼끌꺼끌한 알갱이 역시 플라스틱이다. ‘마이크로비드(micro-bead)’로 불리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은 최근 해양 오염의 적으로 경계대상이 되고 있다. 시판되는 제품에 함유된 마이크로비드는 주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나일론으로도 만들어진다. 마이크로비드는 크기가 1mm보다 작은 플라스틱이다. 크기가 5mm 이하인 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비드의 크기는 그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비드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수구를 통해 강으로, 바다로 스며든다.

바다로 흘러간 마이크로비드는 어떻게 될까? 바닷새에게는 이 작고 반짝이는 마이크로비드가 물고기 알로 보일 수 있다. 이미 바닷새들은 플라스틱을 주식처럼 먹고 있다고 한다. 거북은 비닐을 해파리로 오인해 먹기도 하고, 고래는 씹지 않는 플라스틱 때문에 위가 파열돼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한다.

2015년 여름 일본 도쿄에서 잡은 멸치 64마리 중 49마리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연구 사례도 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알바트로스, 갈매기, 펭귄 등 42개 속 186종의 바닷새들의 먹이 행태 및 해양 플라스틱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 2050년이 되면 모든 바닷새의 99.8%가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게 되리란 우울한 예측도 있다.

마이크로비드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는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다. 바다에 버려진 크기가 큰 플라스틱은 햇빛과 파도에 의해 잘게 쪼개진다. 플라스틱은 얼마나 더 작아질 수 있을까? 1mm의 1/1000인 1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마이크로비드도 발견된 바 있다. 작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해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작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뿐이다.

게다가 플라스틱은 자석처럼 외부 오염물질을 끌어당긴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조각은 폴리염화비페닐이나 DDT 같은 독성 화학물질과 비스페놀A 등의 내분비교란물질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오염된 플라스틱이 축적된 해양 생물을 먹는다면 인간 역시 안전할 수 없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는 이미 1960년대에 나왔지만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로비드에 대처하는 자세는 사뭇 다르다.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가 최초로 열린 때는 2008년으로 비교적 최근이지만 위기감은 높다. 미국의 각 주는 2015년에 잇달아 마이크로비드 사용금지를 선언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부터 세안제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수질오염 방지법에 서명했다. 유니레버, 로레알, 존슨앤존슨 등 다국적 위생제품생산 업체들도 앞다퉈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과연 인간은 얼마만큼의 마이크로비드를 바다에 버리고 있을까? 정확한 수치조차 알기 어렵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우리 바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국내에 유통되는 400개 이상의 제품이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하고 있다. 한 제품이 무려 35만 개를 함유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에 따르면, 거제 해역의 바닷물 1m3에서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는 싱가포르 해역의 100배에 달하는 양이다.

플라스틱은 탄생한 지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우리 생활을 잠식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플라스틱 그릇, 플라스틱 포크로 음식을 먹으면서도 몰랐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게 될 줄은. 이미 바닷새와 물고기의 위장엔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E&C**

Culture

Festival

문경 사과축제 2018

기 간 : 10월 13일 ~ 28일 장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을 새재로 932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자연속에 머물고 싶은 문경, 청정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농촌 그대로를 간직한 문경에서 사과축제가 펼쳐진다. 문경사과축제에는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다. 문경사과를 널리 알리고 명품사과만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한다. 옛부터 문경사과는 달콤한 향의 냄새가 나고 꼭지 반대편에 녹색빛깔이 거의 나지 않는 사과로서 손가락으로 두드렸을 때, 경쾌한 소리가 나는 명품사과로 손색이 없으며 좋은 품질의 사과로 유명하여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http://mgapple.or.kr>

Exhibition

황금문명 엘도라도 – 신비의 보물을 찾아서

기 간 : ~ 10월 28일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이번 전시는 2009년 '잉카문명전-태양의 아들, 잉카', '2012년 마야문명전-마야 2012'에 이어 6년 만에 개최되는 남아메리카 문명전으로 콜롬비아 황금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 준비했다. '엘도라도'는 '황금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대 콜롬비아 무이스카 지역의 족장이 온 몸에 금가루를 바른 채 뗏목을 타고 과타비타호수로 나아가 의식을 치른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콜롬비아 원주민의 "인간은 자연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우주관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화려한 보물 322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이 지역의 신비한 전설이고,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엘도라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www.museum.go.kr



Book

퇴근길 인문학 수업 : 멈춤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바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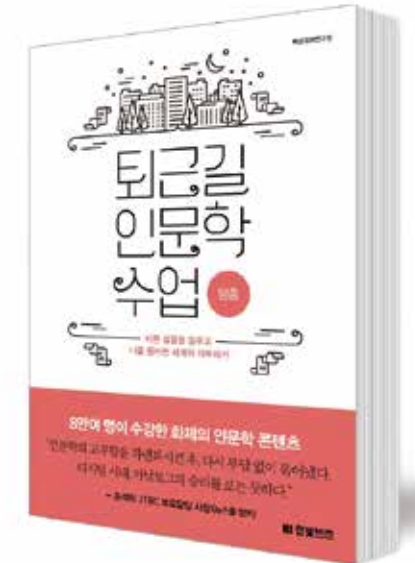
퇴근길 30분 인문학 수업 프로젝트

현실의 삶이 버거울수록 인문학에서 삶의 근원과 존재 이유를 찾고자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런 시대적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삶을 테마로 한 스터디나 인문학 강연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 [서울경제신문]의 부설 연구기관인 백상경제연구소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8만여 명의 수강생을 모은 [고전 인문학이 돌아오다(이하 고인돌)]는 이러한 대중의 갈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퇴근길 인문학 수업》 시리즈는 [고인돌]콘텐츠를 바탕으로 1인 저자의 학문적 깊이에 의존하는 대신 믿을 만한 전문가, 검증된 콘텐츠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멈춤] [전환] [전진] 편으로 구성된 시리즈는 수십 명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인간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36개 강의로 나눠 세 권의 책으로 묶었다.

생태학부터 동양 고전에 이르기까지 '개념과 관념'을 함께 보여주는 커리큘럼을 통해 독자들은 현실에 존재하나 모호한 인문학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관념적 사유를 즐기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근차근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나를 둘러싼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식견을 얻게 된다. 바쁜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인문학 수업을 만나보자.

백상경제연구원 저 | 한빛비즈



Movie

창궐

야귀떼가 온 세상을 집어삼켰다!

밤에만 활동하는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귀(夜鬼)'가 창궐한 세상, 위기의 조선으로 돌아온 왕자 '이청'(현빈)은 도처에 창궐한 야귀떼에 맞서 싸우는 최고의 무관 '박종사관'(조우진) 일행을 만나게 되고, 야귀떼를 소탕하는 그들과 의도치 않게 함께하게 된다. 한편,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절대악 '김자준'(장동건)은 이 세상을 뒤엎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감행하는데...

조선필생 VS 조선필망

세상을 구하려는 자와 멸망시키려는 자!

오늘 밤, 세상에 없던 혈투가 시작된다!

10월 25일 개봉예정



KEPCO E&C News



● 4차산업 기술개발 역량교육 실시

회사는 지난 8월 9일 원자력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차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 개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원자력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회사 중장기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로드맵 구상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국회 4차 산업 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최재봉 교수는 강의에서 4차 산업 시장의 변화 현황 및 준비 사항을 설명하였고, 기업중심, 브랜드 중심 경영에서 소비자 중심, 생태계 구축 경영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자력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장변화 및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향후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 엔지니어링 교육 실시

회사는 원자로설계개발단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우리 회사의 상호협력협약 중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눠 매주 2회(2시간/회) 진행되었으며, 강사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와 한국지진공학회 회원 교수들로 구성되었다. 기본교육은 원자력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생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와 응용, 중성자 확산 및 원자로 이론, 원자로의 종류와 구성, 원자로계통설계를 위한 열수리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화교육은 설계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과정으로 제염해체 및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원자력 기초지식 습득과 체계적인 설계능력 향상이 되었으며, 회사는 교육 효용성 평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다.

● 서울복합화력 1,2호기 최초 수전 기념행사

우리 회사가 종합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복합화력 1,2호기의 최초 수전 기념행사가 지난 8월 30일 서울복합화력 건설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발주처인 한국중부발전(주) 박형구 사장과 우리 회사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중공업(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주)/롯데건설(주)의 임직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서울복합화력 1,2호기는 세계 최초의 지하발전소로 800MW의 전력과 530Gcal/h의 열공급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9월 착공 이래 현재까지 무장애 사업장을 유지하며 기초공사, 주요 기기 설치공사 등을 거쳐 최초 수전에 성공하였다. 최초 수전은 발전소 건설의 핵심 공정으로 전력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설비 시운전을 위해 전력을 공

급받는 것이다. 회사는 2019년 8월 서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서울복합화력의 성공적인 준공을 목표로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2018년도 코드(CODE) 교육 실시

회사는 2018년도 코드(CODE)교육을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계 엔지니어의 코드 이해도 향상 및 재개정사항 조기 습득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기계, 배관, 품질기술 등 13개 분야 23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입사 5~10년차 기술직 및 연구직 직원과 수강희망자를 대상으로 했다. 코드교육은 회사 직무분석 및 역량진단결과에 따라 코드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정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분야별 직무전문가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OSPO 영남파워 발전소 준공

우리 회사가 종합설계를 수행한 KOSPO 영남파워 천연가스복합발전소의 종합준공기념식이 지난 7월 19일 열렸다. 행사에는 우리 회사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울산광역시 시장, 기자재공급사 및 시공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KOSPO 영남파워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발맞춘 청정 LNG발전소로 44년간 운전된 기존 영남화력발전소(중유 200MW x 2기)를 폐지하고 동일 부지에 환경설비 설계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 설계된 설비용량 476MW급 LNG 복합화력발전소다. 1년여에 걸친 대정부 협의와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착공에 들어간 KOSPO영남파워는 지난해 10월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성공적인 준공을 하게 되었다. 우리 회사는 2012년 8월에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 6년 동안 사업주체변경, 사업진행방식 변경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시운전 지원 등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 준공은 물론 국가전력수급에 크게 기여했다.

● 2018년도 제6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6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 분	선 정 자		추 천 자	
모범직원	원)전기기술그룹(책임급)	박진휘	원)전기기술그룹(주임급)	이덕수
	원)자력사업관리실(책임급)	김민철	원)토목건축기술그룹(책임급)	이상선
	기술전략실(책임급)	김경태	원)전사후관리사업그룹(책임급)	최광순
친절직원	신)전기계측기술그룹(책임급)	박범수	신)사업관리실(책임급)	장승호



청렴한 계약의 중요성

| 청렴한 계약의 의미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한 계약의 의미



청렴한 계약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나요?

공공계약에서 청렴성을 담보하고 공공계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 맞추어 청렴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참사랑봉사단



회사는 지난여름 연일 계속되는 국가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힘들어 하시는 지역 내 어르신 돕기에 나섰다. 1사 1촌 결연 마을인 김천시 감문면 소재의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 7개소에 에어컨을 지난 8월 1일 기증했다. 더불어 우리 회사 참사랑봉사단이 에어컨 설치 후 경로당을 방문하여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달식에서 감문면 이동형 면장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되었다”며, “한국전력기술의 에어컨 기증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회사는 2005년 창단한 참사랑봉사단을 중심으로 김천지역 내 마을과 결연을 맺고 농번기 일손 돕기, 사랑의 연탄 나눔, 소외계층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로사업관리실 배봉재 부장 자녀 : 9월 2일 더아리엘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김태호 대리 : 9월 8일 런던웨딩프라자
- ▶ 원자로사업관리실 김교상 부장 자녀 : 9월 8일 대검찰청예식장
- ▶ 원자력사업처 박정실 사원 : 9월 16일 이룸웨딩컨벤션(경찰공제회관)
- ▶ 미래기술연구소 이대형 사원 : 9월 16일 메종드비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윤기석 처장 자녀 : 9월 30일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

부음

- ▶ 신사업)기계배관기술그룹 박광근 부장 모친상 : 8월 3일 포천의료원
- ▶ 안전성평가연구기술그룹 이동원 차장 부친상 : 8월 4일 대전 유성선병원
- ▶ 신사업)전기계측기술그룹 김현우 부장 모친상 : 8월 5일 고대안암병원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정태화 부장 모친상 : 8월 9일 부산시민장례식장
- ▶ 원자력사업처 김태진 부장 모친상 : 8월 9일 강남성모병원
- ▶ 원자로사업관리실 오윤성 부장 부친상 : 8월 10일 대전 유성한가족병원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김성준 차장 부친상 : 8월 13일 서울대학교병원
- ▶ 글로벌마케팅실 주선영 과장 부친상 : 8월 13일 춘천 호반병원
- ▶ 신사업)기계배관기술그룹 이상헌 부장 장모상 : 8월 19일 서울 아산병원
- ▶ 원자력기술그룹 정재식 부장 모친상 : 8월 20일 수원 연화장장례식장
- ▶ ICT솔루션실 정술 사원 부친상 : 8월 22일 전북대학교병원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김용복 대리 모친상 : 8월 24일 당진 신평장례식장
- ▶ 신사업관리실 이기홍 부장 모친상 : 8월 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송인호 처장 부친상 : 8월 25일 강남성모병원
- ▶ 원자로사업관리실 박진아 사원 부친상 : 8월 30일 인천의료원

동우회 동정

결혼

- 신현철 회원 자녀 : 8월 26일 도심공항터미널
- 허광만 회원 자녀 : 9월 1일 더베일리하우스 논현
- 이석영 회원 자녀 : 9월 15일 더화이트베일 서초
- 장상원 회원 자녀 : 9월 15일 KDN웨딩홀(한전아트센터)

부음

- 김옥대 회원 부친상 : 8월 4일 김해시민장례식장
- 박규식 회원 장모상 : 8월 6일 충남대병원
- 임홍국 회원 모친상 : 8월 18일 거창장례식장
- 유만호 회원 모친상 : 8월 27일 경기도 광주 천주교능평성당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

— 결합 할인액 및 위약금 등 중요내용 정부 지침 준수 필요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07년 이후 5.42배** 증가했다.

* 유선상품인 인터넷, 전화, IPTV 또는 무선상품인 이동전화 등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07년 309만 건→'16년 1,675만 건("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년11월)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 ‘계약 해지·해제’, ‘중요사항 설명미흡’ 순으로 피해 많아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합 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입단계에서 결합상품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 해지 시 위약금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제3조 제1항 제호)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요금 및 할인액, 결합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이 명시된 안내문으로써 이용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 교부하도록 행정지도(방송통신위원회, '16년 7월)



한편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 여부를 점검한 결과, LGU+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여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합할인액은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해 '결합할인' 30,800원으로 명시

또한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유·무선 결합할인은 이동전화 요금제에 따라 결합혜택 차이 커

이동전화 2개 회선, 인터넷(500M 속도) 및 IPTV(기본상품) 총 3개 상품을 신규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2,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SKT·SKB가 월 '77,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동전화 32,890원 및 65,890원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LGU+가 '92,510원'으로 가장 유리했고, 65,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KT가 '114,18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동통신 요금제 및 결합 회선 수 등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결합 시 유리한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 이해 쉽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등 개선 필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1개 사업자(LGU+)에 불과했다.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내용 설명서에 가입단계(약정할인, 결합판매 위약금 관련 내용 등), 이용단계(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등), 해지단계(위약금 부과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또한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나 1개 사업자(LGU+)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해 왔다.

* SKT, SKB, KT는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에 위약금 산정 예시 작성 아울러 소비자에게 쉽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안내서 기반 설명 등의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향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권의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주의사항

■ 가입 상담 시 구성 상품 별 기본요금, 개별 상품별 기간(1~3년) 약정 할인액*, 결합 기간별(1~3년) 약정 할인액, 위약금(할인반환금)등 조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다.

*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인터넷, 장비임대료 등), 결합할인

■ 통신사별 결합정책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합상품을 선택한다.

* 한국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통신사별 결합상품 혜택을 비교할 수 있다.

■ 현장(대리점) 대면 가입 또는 전화 가입 시 표준안내서, 신청서, 이용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자신이 상담 받은 조건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 3년 약정 계약 시 위약금은 2년을 기준으로 점차 상승했다가 감소되는 구조이므로, 결합 약정 기간 및 해지 시점을 신중히 결정한다. **E&C**

줄넘기

Writer 정 세 훈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정연행 차장 자녀



나는 줄넘기를 잘한다.
그런데 2단 뛰기는 어렵다.
계속 줄넘기 탓인 것만 같다.



새 줄넘기로 연습해 본다.
어어~ 탁, 에이 자꾸 아쉽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해 본다.
두 눈 꼭 감고 2단 뛰기 시작
성~ 성공이다.

2단 뛰기 성공 후 한 개씩 더해 가는 속도는 빠르다.
하하~ 벌써 2단 뛰기 25개
다음엔 한발로 2단 뛰기를 도전해 보아야겠다.



가을노경

퇴근후.. 벼가 익어 가는 가을 저녁 들판 길을 걸어 봅니다
귀뚜라미, 여치, 베짚이, 메뚜기 노랫소리가 흩어집니다
멀리 낮에 보았던 구름 틈 사이로 노을이 새어 나오고
들판 넘어 자리한 상가의 간판불이 하나둘씩 켜질 때면
논두렁 두엄을 차지한 유흥초의 붉음에 밭길에 닿습니다
노을 하늘도 황금빛 벼도 상가 가로등도 논두렁 유흥초도
또한 내가 서 있는 이곳도 참으로 모두가 조화롭습니다
이렇게 조화롭고 편안하니 마음이 풍요로운가 봅니다
가을의 풍요가 이렇듯 소소한 것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